

# Craig Keener 박사, Matthew, 강의 9, 마태복음 6:1-18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9회기 마태복음 7-8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를 오직 하나님만 보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을 존경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선, 기도, 금식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금식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그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누가복음의 다른 부분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태는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예수께서는 약간 다른 형태로 기도를 두 번 이상 가르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점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Kaddish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익숙했던 종류의 기도를 적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좋은 원칙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카디쉬를 바쳤고, 그의 위대한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해지도록 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왕국이 속히, 속히 오기를 빕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도는 하나님을 유대 민족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유대인 기도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 문학에서도 으뜸가는 하나님을 세상의 아버지, 세상의 창조자로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슨 뜻인가요? 글쎄, 다른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다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교 기도문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는 대개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을 사랑하고 부양해 줄 사람, 당신을 징계할 사람, 그러나 오직 사랑 안에서만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유쾌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것이 바로 이것이 말하는 아버지라고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존의 표현입니다. 이 기도 전에 그가 말했듯이, 아시다시피 이교도들은 이 모든 장황한 말로 기도하면서 신들이 그들을 조종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7장 7절부터 11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돌이나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존의 기도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 어린아이처럼 왕국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유대인의 기도에서는 종종 우리 아버지께 대해 언급했지만,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께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바(Abba)라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과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점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물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바(Abba)라고 부르는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는 수세기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 예들은 모두 같은 상황을 언급합니다. 랍비가 말하는 비유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Abba)에 비교하는 것이며 항상 같은 랍비가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하나님을 아바(Abba)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바, 아시다시피 그것은 단지 어린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존경의 칭호이기도 했지만 친밀감의 칭호, 큰 애정의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버지와의 관계에 적용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에서는 영어로 아버지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친밀감의 문제라는 보다 친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이며, 아버지와의 친밀함이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신뢰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버전과 달리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청원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청원이 있고, 우리 청원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리스어에서는 you 또는 your가 매번 문구 끝에 나타나며 그 반복으로 인해 매우 강조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먼저 왕국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카디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국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직 왕국의 일부가 아닌 미래의 왕국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원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했지만, 내 생각에는 고대의 다른 종류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대개 현재의 필요를 위해 현재 지향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또한 공동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걱정거리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강조점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36장에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면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미래를 위한 기도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일관되게 살아가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카디쉬에서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조지 풋 무어(George Foot Moore)는 주로 랍비 문헌을 언급했지만 약 1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카디쉬 하셈(Kaddish Hashem)을 유대 윤리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으로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은 너무도 잔혹한 일이어서 어떤 랍비들은 “죄만 지으면 자제할 수 없고 이방인으로 변장하고 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라. 글쎄, 그들은 말 그대로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현재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그의 통치나 그의 왕국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전 없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확립하고 자신의 백성을 압제에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주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왕국이 아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왕의 오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사점?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제 땅에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 난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졌어, 난 그냥 만족스러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직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가오는 세상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24장 14절에 천국의 좋은 소식이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 전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2819와 2820도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에 관해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미래의 약속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일의 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의 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한 표현은 우리에게 낯설다. 다른 곳에서는 그 문구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현재에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미래의 종말론적 만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것도 약속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고대에 빵을 위해 기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으니 오늘 필요한 만큼의 떡을 내게 주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추정치에 따르면 지중해 세계 인구의 70~90%는 농촌 농민이었고, 이들 중 다수는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서 일하지만 일부는 자신이 작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나 수확 등을 가져오기 위해 스스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종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가장 의존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광야에 있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스스로 빵을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분의 백성을 공급하셨듯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항상 알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접할 수 있고 다른 청원 중 일부는 나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분께 의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빵을 얻기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존하셨고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청원과 관련하여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의 빚을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들은 밭에 심을 곡물을 사기 위해 종종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일부 이방인 대금업자는 50%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자 드문 예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대금업자들은 흔히 상당한 이자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대금업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청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밭에 씨를 뿌릴 곡물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값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일곱째 해, 즉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희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업자, 즉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진 사람들은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컨퍼런스에 갈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책을 팔려고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을 항상 원가에 팔고 아무런 이익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나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유대인 교사들은 '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전에 돈을 바칩니다. 사원은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농민은 절에 갚아야 하고, 절은 대금업자에게 갚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법의 문자를 피하는 방법이었지만 실제로는 법의 정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 최소한 사람들은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주세요.

다시 12절입니다. 우리 빛을 탐감해 주십시오. 글썄요, 그것은 유대 민족이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용서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쉼모나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레이(Esrei) , 18가지 축복. 이것은 18번의 축복 중 여섯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이 없었지만 그 개념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집회서 28장에서 네 이웃이 행한 잘못을 용서하라.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 네 죄가 용서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소서. 우리를 테스트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어려운 시기가 결코 없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글썄,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를 거두셨으며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전체 문맥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 26:4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갓세마네에 가서 잠들었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테스트는 이미 언덕 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요점은 테스트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점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언어가 유대인의 기도에서 때때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문구를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유대인의 저녁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저녁 기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 발을 죄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불의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유혹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부끄러운 일의 권세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므로 테스트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는 부분도요.

그리스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악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악한자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계획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악마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쁜 유혹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태복음 4장과 3절에서 유혹자라고 불렀고, 마태복음 4장과 5절에서는 마귀라고 불렀고, 4장과 10절에서는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에서는 우리가 종종 무시한다는 생각이지만, 일부에서는 세계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초인적인 표현은 실제로 더 나은 표현으로, 초인간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악의 차원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끔찍해서 사탄의 존재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악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급했듯이, 귀하의 청원은 3개이고 우리의 청원은 3개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끝은 어떻습니까? 여러 성경 번역판에서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적어도 가끔은 각주에 언급되거나, 교회에서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음, 그것은 성경적 언어입니다. 내 말은, 시편에는 그런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의 초기 사본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고 아마도 마태복음의 원본에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비평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지라도 다른 곳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고대 지중해에서 가장 잘 입증된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많은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에 대한 필사본은 30개 정도 있습니다.

일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작품의 경우 고대 세계, 때로는 900년 후의 사본 하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잘 입증된 지중해 고대 작품인 호머의 일리아스는 700권 미만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승려들이 가장 즐겨 베껴 쓰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성서의 사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본 중 일부는 매우 일찍 출시됩니다. 내 말은, 우리는 2세기 초의 요한복음 단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한 세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복사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사본들, 이 초기 사본들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몇 세기 동안 계속 재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본이 복사되고 있으며, 어쩌면 일부 원본에서도 복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때때로 서기관들은 '아, 누군가 이것을 빼먹었다가 추가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거기에 있었어야 했고, 그들 앞의 서기관이 실수를 해서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때때로 서기관이 실수를 해서 실수로 무언가를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모든 것을 손으로 복사해서 실수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 필사에 있어서의 오류입니다. 글썄요, 이 경우에는,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것은 다른 문서들처럼 왕실에서 복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 책은 자주 복사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끝에 일종의 송영을 추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 기도에서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음, 서기관들 중 일부는 전통에 따라 이런 것을 추가하고

마태복음의 본문을 접하고는 '아, 그건 거기에 없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추가했고 그것이 우리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성경적이지만 실제로는 마태복음 원본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마도 아주 일찍 추가된 것 같습니다. 1인칭 복수형은 '우리를 주다, 용서하다, 인도하다, 구원하다'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공개 기도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양 문화와 서양 기도는 매우 개인주의적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 속에 아바라고 부르짖는 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박해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범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이러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비밀 단식을 합니다.

금식은 종종 슬픔이나 회개를 표현하며 때로는 공동의 회개, 공동체의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마음의 문제여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요엘 2:13,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사야 58장, 진리가 구하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느니라. 정의를 위해 일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일을 하세요. 기도와 금식은 종종 기도와 결합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던 초기 유대교에서 금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언젠가는 심각한 필요 사항이 있을 때, 기도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금식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금식하기 위해 결코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학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수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는 매주 하루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한 필요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며, 내가 금식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것은 놀라운 헌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희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뇨병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기 위해 오일을 사용하거나, 일부 문화권에서는 건조한 두피에 윤활유를 바르는 데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단식에는 자기 비하, 씻기, 면도, 성교 금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마친 후 그는 다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의 물질주의에 도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물질주의를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동생이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글썄, 그 형제는 상속 재산을 나누어야 했어요. 내 말은, 그것은 법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여, 그것은 그들이 해야 할 주요 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법이 말하는 바를 다루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대신에, 알았어, 그러면 내가 당신의 법적 권리를 옹호할 테니 물질주의적으로 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쓰지 마세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요점은 예수님과 왕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소유물을 추구할 만큼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유물에 대해 걱정할 만큼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지 마십시오. 6:19부터 24까지.

어떤 사람들은 부를 칭찬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그것을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부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에 대해 말했고, 가능한 한 많이 벌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주십시오. 그는 가능한 한 많이 지출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돕는 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를 버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영적으로 위험한 것으로도 여겼습니다. 신명기 6장과 같이 네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또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예수아와 그리피스가 실제로 발로 밟을 때, 이스라엘이 번영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대교 문헌에서는 현재의 보물과 참된 영원한 보물, 즉 하늘에 있는 보물의 무가치함을 비교했습니다. Essenes는 사유 재산을 포기하기까지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급진적이지만 에세네파와는 다릅니다.

그는 감독하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물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돌볼 것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자원을 사용하여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유물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맞춰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19-21, 하늘의 보물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사람들은 집 안이나 바닥 아래에 있는 튼튼한 상자에 저축한 돈을 모두 보관하곤 했습니다.

의류도 그 종류에 따라 부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땅에서의 순종, 특히 자선은 하늘에서 보물을 얻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매우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얼마나 멀리 추진하셨는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6:22-23. 그는 말 그대로 당신의 눈을 외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히브리어 단어 완전함을 번역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한마음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외눈과 병든 눈 또는 사악한 눈을 대조합니다. 한쪽 눈은 종종 유대인 관용어로 관대한 눈이나 건강한 눈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건강한 눈을 사악한 눈인 파네라스와 대조합니다. 질투심이 많거나 인색하거나 질병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을 너그럽게 하여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아 안돼, 이건 나만 갖고 싶어'처럼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그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mammon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mammon은 유대인들이 때때로 아람어를 사용하여 돈을 의인화한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돈을 뜻하는 용어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의인화하여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거나 mammon입니다. 돈을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단어는 관대하게 번역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의 일부인 단일 번역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단일 대 이중이라는 의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니 주인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동 노예가 몇 명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소유물에 대해 걱정할 만큼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625-34.

하나님은 기분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제시하는 예는 음식과 의복과 같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매우 부자가 되거나 매우 값비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을 약속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철학자와 랍비들은 종종 자연에서 교훈을 얻었고, 예수님도 자연에서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내 말은, 이것은 솔로몬 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지혜 중 일부는 자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생물학에서 윤리적 원칙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작가들은 종종 주변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배우곤 했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언급하시는 것과 비슷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참새를 알고 계십니다. 그는 모든 백합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돌본다. 왜 그 사람이 당신을 돌봐주지 않을 것처럼 걱정합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망토는 필수로 간주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그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겹옷이 단 한 벌밖에 없었지만 그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도 도전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겹옷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옷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나중에 24장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위태롭다면 겹옷이 필요하다더라도 겹옷을 남겨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이교도들이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교도들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들처럼되고 싶지 않습니까? 6.31 및 6.32.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은, 그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6장과 11절에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나 너희는 이런 것들에 근심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는 걱정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길이를 측정하는 한 큐빗도 장수에 추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래픽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비록 큐빗이지만 때로는 언어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미 집회서에 걱정이 수명을 연장하는 대신 오히려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자는 예수보다 나중에 말했지만 아마도 현자들 사이에 친숙한 전통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걱정은 그 날에 충분합니다. 거기에 내일의 걱정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때때로 생화학적으로 발생합니다. 항상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지금보다 몇 년 전에 제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 당신은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표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종종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당신은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마가에서는 때때로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신성한 특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관해 동일한 신념을 가진 다른 유대인 현자들도 있었습니다.

Sirach, Hillel 등은 모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여기에서 사용하신 것과 같은 유대 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측정하는 만큼,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측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합리화함으로써 자신을 눈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이다. 그것은 마치 맹인 안과 의사가 당신의 눈을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탈무드는 유대교 랍비 전통의 본체를 사용합니다.

탈무드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온화한 비판에도 분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불평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눈에서 칩을 빼내라는 말을 들으면 그는 "글쎄, 당신 눈에서 빔을 빼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여기서 친숙한 표현을 적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다. 안과 의사에 대한 고대 문헌을 읽어보면, 그들이 수술을 하려고 할 때 눈이 손상되면 그들의 눈도 손상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당시에는 안과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의 이미지는 훨씬 더 그로테스크합니다.

눈에 이 나무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6절은 좀 더 어려워서 주석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립된 말로서 의미하는 바는 하나이지만, 이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합니까? 글쎄, 나는 이것에 대해 최선의 추측을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아낼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는 이것이 잠언 23장 8절에 있는 것과 같은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돌이켜 너를

찢어버릴 것이다. 잠언 23:9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그는 네 말의 지혜를 멸시할 뿐이니라

문맥상 보면 그것은 아마도 시정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시정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 8절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시정을 준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자신이 제공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에게만 지혜나 왕국의 선물을 분별력 있게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진리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십시오. 나중에 그들이 들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면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7장 7-11절에는 좋은 선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무엇이든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7, 7-10.

이제 이것은 기도에 대한 특별한 약속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일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고대 유대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할 때 그것은 매우 특별하고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글썄, 여기에서 그분이 기도에 대해 제시하신 종류의 예는 아시다시피, 빵을 구하면, 누가도 계란을 구하면 이것이 기본적인 필수품입니다.

빵과 물고기는 여기서 언급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단지 기본적인 것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은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7장과 11절. 여기서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오메르의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훨씬 더 많은 논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악하지 아니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특별히 좋은 은사인 성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마태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십시오. 음, 이것은 중국의 윤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에서도 널리 퍼져 있던 고대 윤리의 원칙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성별에 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 윤리와 매우 유사한 유교적 진술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많은 진술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윤리의 널리 퍼진 원칙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십시오. 긍정적인 형태는 그리스 문헌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헤로도토스, 소크라테스, 호머, 세네카에도 등장합니다. 부정적인 형태는 유대인 문학, 토비트, 필로, 그리고 힐렐의 말에 널리,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헬레니즘 유대 문학에는 때때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처럼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도 행하라고 하시고 그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요약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 행한다면, 당신은 율법의 원칙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힐렐의 것으로도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힐렐은 예수보다 먼저 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가 나온 지 몇 세기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랍비들이 예수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도 더 친숙한 생각 일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힐렐만큼 친절하지 않은 삼마이에 온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삼마이는 예수님의 사역 이전 세대와는 다른 랍비였고, 삼마이는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Shammai에 와서 말했습니다. 한 발로 서는 데 걸리는 시간 안에 토라 전체를 가르쳐 주시면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글쎄요, Rabbi Shammai는 그것에 대해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수 막대기를 빼앗아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힐렐에게 와서 만약 당신이 한 발로 서서 나에게 토라 전체를 가르쳐 준다면 나는 유대교로 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힐렐은 말합니다. 이웃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그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 현재의 주장과 미래의 심판(7:13-27)을 다루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좁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이미지는 고대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었고 유대교에서는 매우 흔했습니다. 그 한 예가 요하난 벤 제카이(Yochanan ben Zekai)입니다. 그는 1세기의 주요 랍비 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임종할 때 '내 앞에 두 길이 보이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하느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대부분이 손실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에스라 7-8장과 사해 두루마리를 포함한 일부 다른 종파적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토라를 충분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15-23절. 참 선지자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예루살렘 안에 구원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타기까지 그들은 성전에 서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실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벤과 아나냐가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슈아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과 선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마치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들을 시험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당신이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은사로가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의 청중들, 이들은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초기 기독교 작품인 디다케(Didache)가 있는데, 이는 매우 초기, 아마도 2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일찍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디다케는 선지자들이 당신에게 오면 그들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돈을 위해 일한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몇몇 제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15절). 그는 그것을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말합니다.

양과 늑대의 적대감은 속담이었고, 변장하고 다가오는 포식자들도 친숙했습니다. 이솝 우화에는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점은 그들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에 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죄를 짓기 시작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던 사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것은 그를 따라잡았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던 때가 있었고, 그 일은 그가 회개한 후에 되찾은 은사와 능력을 잃기 전에 일어나고 있었지만 매우 높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6장에서 주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그는 이 라아 루아흐가 무엇이든, 악한 영이든 심판의 영이든 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의 구약성서 동료들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나중에 주님의 영이 매우 강한 곳에 이르러 사무엘상 19장에서 주님의 영으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경건이 너무 많아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영의 힘이 많이 발휘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인해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우쭐대면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 날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예언하고도 실제로는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음, 그것은 부인을 위한 법적 형식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심판 날에 예수님께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 날의 심판관이십니다. 이제 일부 유대교 본문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의 하급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대교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심판 날의 심판자로 묘사됩니다. 마지막으로 24장부터 27장까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토라와 비교하여 이 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 날에 심판을 받으시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기초로 삼았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비슷한 Tannaitic 비유가 있습니다. 내가 탄나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랍비 문학의 초기 계층에서 나온 초기 랍비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비슷한 비유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심판에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 나오는 바위는 토라를 가리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말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토라에 관한 이 비유를 이어받아 자신의 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토라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폭풍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때로는 이런 일들로 인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것이 마태복음의 다섯 가지 주요 담화 부분이 모두 끝나는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서기관은 일반적으로 이전 서기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여라고 너희가 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같으니라 그분은 권위를 갖고 가르치십니다. 이제 그 언어는 이미 마가복음 1장 22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은 권위가 있는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말합니다.

마태는 토라와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토라를 설명하고 계시지만, 다른 교사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설명하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예가 나옵니다. 10가지의 지정된 기적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에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래서, 당신은 10가지 특정한 기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그것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물을 피로 바꾸지 않고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최소한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John의 서신이 약간 일치합니다.

그러나 10가지의 구체적인 기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9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개의 제자훈련 섹션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가르침과 제자도라는 세 가지 기적이 있고, 가르침과 제자도라는 세 가지 기적이 있고, 가르침과 제자도라는 세 가지 기적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가르칩니다. 마가복음의 30% 이상이 기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5분의 1은 기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부분은 마가복음보다 더 큰 교육 블록을 가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은 많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서구에서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단지 그것들을 영성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와 두 번째 기적 이야기 사이의 맥락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배웁니다. 예수님은 질병, 폭풍, 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그분의 권위에 굴복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8장과 9장, 10장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점을 제자들에게 본으로 적용하셨습니다. 음, 기본적인 해석학이나 기본적인 해석 절차는 실화를 우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단순한 상징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기적 이야기는 영적 회복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육체적인 회복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세계 대부분의 기적 이야기를 단지 상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고대에 읽혀졌던 방식이었습니다.

내 말은, 이교도 집단에서 생각해 보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들어가서 벽에 아스클레피오스가 행한 다양한 기적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벽에 있는 기적의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들어오는 누군가가 '아, 아스클레피오스도 나에게 기적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총체적으로 돌보시는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왕국은 아직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육체적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부터 이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복음에 관심을 끄는 주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개토론회도 있었지만 주된 방법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릎이었습니다. 그녀는 '오, 크레이그 의사 선생님은 내 무릎에 대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나쁘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럼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크레이그,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무릎을 위해 기도해 준 이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내 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계속 피를 토했는데 의사는 내가 폐암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들러서 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정말 끊어야 합니다. 폐에 좋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 의사도 그런 말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점심시간에 지나가다가 '좋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시든 안 하시든,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그녀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했고, 나는 그녀가 낫기를 기도했고 그녀도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를 토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아, 결국 폐암은 아니군요. 그리고 그녀는 노년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미 늙었다고 말하곤 했지만, 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나는 늙음의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예를 살펴보면, 이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항상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예 중 하나는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8장 1절부터 4절). 이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는 나병환자입니다. 그에게는 신체적 영향도 있지만 사회적 영향도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 아무도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제사상 부정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식하면서도 겸손함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오나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당신께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 부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영상. 또는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은 “이 땅은 내가 차지할 땅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차지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왔을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한 가지는 이것을 단지 경찰 아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치유가 절실한 사람과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그들과 함께 설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충실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에게 삶과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일에 정말로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면 그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신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기도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서 그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매우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종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비록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치료하셨다면 1세기의 모든 사도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Paul은 머리가 잘려지고, 흘룽하고, 다시 머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봅니다. 나는 기꺼이. 나는 당신이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만질 수 없는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이 나병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따르면 그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은 부정해진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부정함을 받아들이시며 만질 수 없는 자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의 죄를 품으셨습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품으사 우리로 자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마찬가지로 그분은 이 사람들의 더러움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깨어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아적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미 군중 제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군중이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4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말한 대로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증거하라 하였느니라

가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시면 누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지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신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당신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로 당신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등의 다른 많은 예가 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9회기 마태복음 7-8장입니다.